

요 약

- 2001년도 해외건설시장 매출액 기준으로 한중일 3국이 차지한 시장 점유율은 16.1%이며, 이는 1998년보다 34% 포인트가 낮은 수준이나, 중국업체들의 점유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.
- 중국의 약진이 주목할만하나 한국과의 경쟁부문이 상호 중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, 향후에도 이러한 구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경쟁기술에 있어서 한국은 CM/PM기술, 일본은 설계/시공기술, 그리고 중국은 생산가격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.
- 향후 시장에서는 중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지역에서 경쟁력 우위를, 한국은 중동과 중남미시장에서 유리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됨. 반면에 일본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후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.
- 건설 상품별로 살펴보면, 중국은 교통시설부문에서, 일본은 랜드마크적 시설물 공사에서, 한국은 플랜트부문에서 가장 유리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됨.
-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발판으로 최근의 해외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으나, 일본과 한국은 급변하는 국제 경쟁 패러다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시장 확대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됨.
- 하지만, 해외건설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은 주력시장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최근 부상이 한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. 반면에 일본과 중국은 경쟁적 관계에 놓일 것으로 전망됨.
- 향후 해외건설시장에서 한국은 중국, 일본보다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,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아직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 또한 해외건설시장은 국내시장 축소에 대한 대체시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선택시장으로 보는 인식이 강함.
- 해외시장을 국내시장의 대체시장으로 만들고 건설을 해외 주요 수출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, 정부가 핵심 상품, 지역 및 대상 기업 등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